

이슈분석

Ⅰ. 미국 가계 소비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2
Ⅱ. 하반기 유가전망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4
Ⅲ. 2009년 3/4분기 중소제조업 경기전망 8

동향분석

Ⅰ. 해외경제 10
Ⅱ. 국내경제 11
Ⅲ. 중소기업 12
Ⅳ. 금융시장 14
Ⅴ. 자금흐름 15

CEO 라운지

Ⅰ. 하반기 경영환경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인들의 시각 16
Ⅱ.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세종대왕의 리더십 18
Ⅲ. 컨설팅과 함께 기업살리기 20
Ⅳ. 서평 21

경제지표

경제지표 24

Ⅰ. 미국 가계 소비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미국의 소비 감소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중장기적인 현상

■ 현재 미국의 실질 소매판매액 규모는 '01년 7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가계저축률 급등으로 향후 3년 이내에는 '06년 최고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 실질 소매판매액 규모는 '06년 1월부터 '07년 11월까지 완만한 보합세를 지속하다 '07년 12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추세적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소비가 '06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3년 이상이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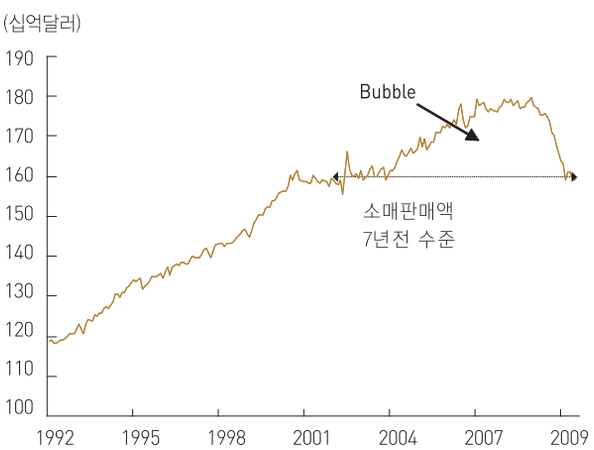
○ 또한 소비의 중요한 바로미터인 미국의 일일 석유소비량은 '09년 5월 1,810만 배럴로 12년 전인 '96년 수준으로 감소

■ 미국 가계의 소비수준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면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회복되더라도 '00년대 초중반과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

○ San Francisco 연준은 향후 10년에 걸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조정되면서 개인저축률이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FRBSF Economic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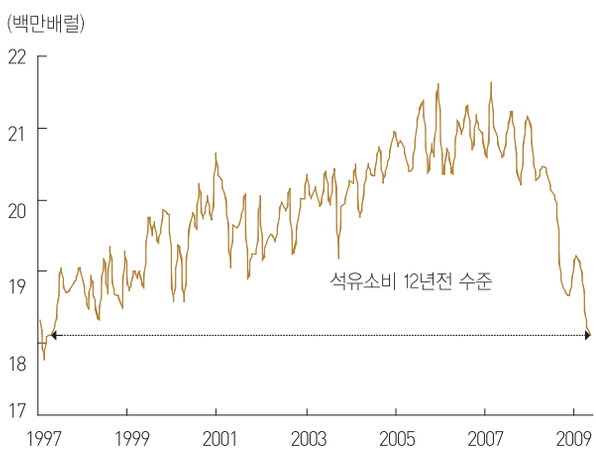
○ Morgan Stanley는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이 80%~100% 정도이며, 2011년까지 약 2년 정도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미국 소매판매액 추이



자료 : 미 상무부

미국 일일 석유소비량 추이



자료 : 석유정보망

미국 소비회복 장기화는 부채 증가에 따른 저축률 상승에 기인

- 가계 부채는 '09년 1/4분기 13.8조 달러로 감소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대비와 GDP 대비 가계 부채는 각각 128%와 98%로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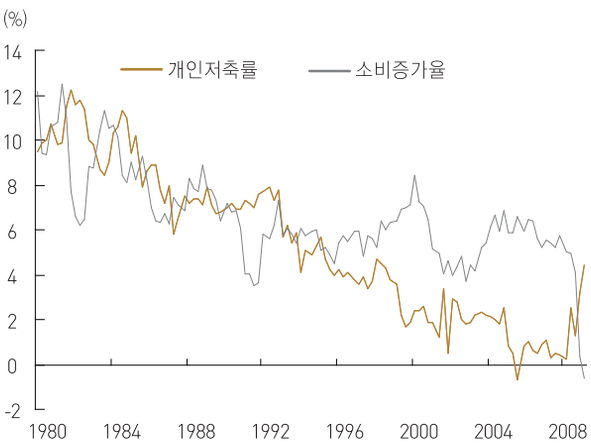
- 미국 저축률의 증가세가 높은 부채규모와 맞물리며 미국 가계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

  ○ 미국 개인저축률은 '05년 8월 -2.7%까지 감소되었으나 최근 저축률이 6.9%(5월)까지 상승하여 저축-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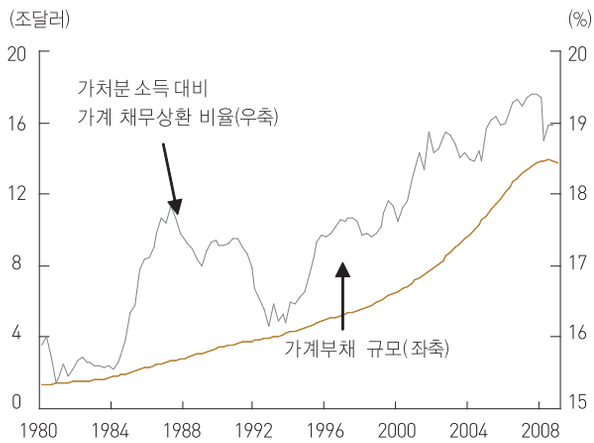
  ○ 루비니 교수는 저축률이 향후 10% ~ 11%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펠프스 교수는 미국의 가계와 기업이 원상회복되는 데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25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실업률도 미국 소비회복의 발목을 잡을 전망('09년 6월 기준, 9.5%)

미국 개인저축률과 소비증가율



미국 가계 부채 규모 추이



자료 : 미 상무부

한국의 대외여건 개선에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

- 미국 소비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등의 대외부문은 직 · 간접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주요국들의 對美 수출 증가율은 '08년 11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09년 5월 현재 한국 -24%, 중국 -17%, 일본의 경우는 2009년 4월 -52% 기록 中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성룡 연구위원(729-6709)

Ⅱ. 하반기 유가전망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월까지 유가가 급등한 것은 실수요보다 가수요 증가가 더 큰 요인

■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09.5월부터 2개월 동안 36.5% 증가하며 6.30일 배럴당 71.85달러까지 급등

■ 저가매수 기회가 증가했고, 달러약세와 美 국채가격 하락에 따라 각 국이 외환투자를 헷징할 목적으로 전략유를 대량으로 비축한 것이 유가 상승의 요인

○ 미국은 '06년 하반기부터 전략유 비축을 본격화했는데, 올해 6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기대비 2.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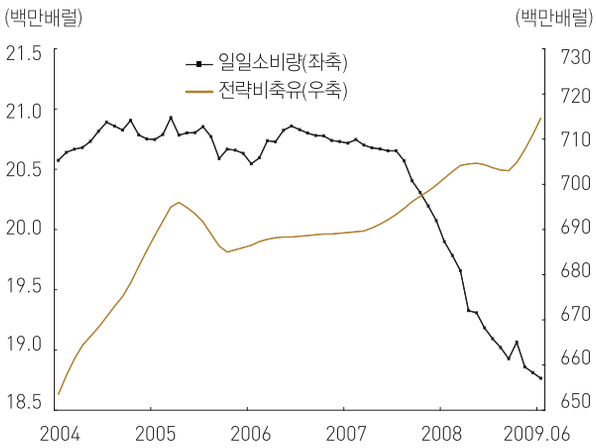
○ 중국의 경우, 4 ~ 5월 원유소비가 감소한 반면 원유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략유 비축을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중국 원유소비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5.10('09.1/4분기) → -0.19('09.4 ~ 5월)

· 중국 원유수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0.19('09.1/4분기) → 9.26('09.4 ~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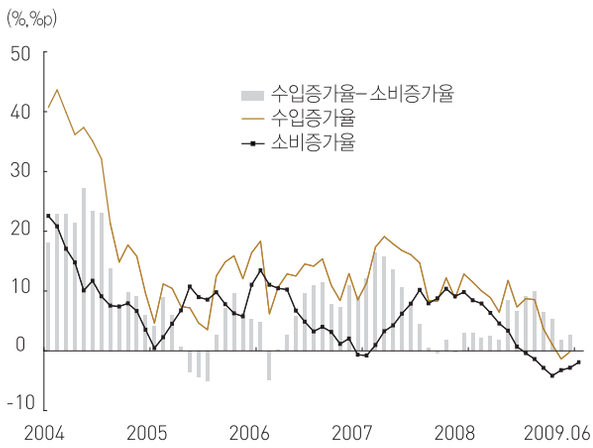
· 중국정부는 1억 6,900만 배럴(중국 원유수입량의 90일치)에 해당하는 2차 전략유 비축 계획을 실행할 예정(월스트리트저널, 6.1일)

미국 원유소비와 전략적 비축량



자료 : EIA

중국 원유소비와 수입증가율



주 : 중국 원유소비와 수입증가율은 각각 배럴과 톤 기준이며 6개월 이동평균
자료 : CEIC

■ 5 ~ 6월 글로벌 경기의 회복신호가 감지되고, 유동자금이 달러화 약세기조와 함께 상품시장으로 대량 유입된 것도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 5 ~ 6월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 주요국 소비심리 개선,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등 경기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

○ 美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확산되며,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된 것도 상품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자극

· 6.23일 무디스가 美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로 유지했으나, 발표 전 5월 한달동안 시장에서는 등급하락 우려로 달러지수가 4.86% 하락

수급측면에서 유가는 여전히 하향압력을 받는 중

■ 원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는 여전히 하락압력을 받는 중

○ 올해 2/4분기 중국의 원유소비(809만 배럴/일)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했지만 중국의 소비는 세계 소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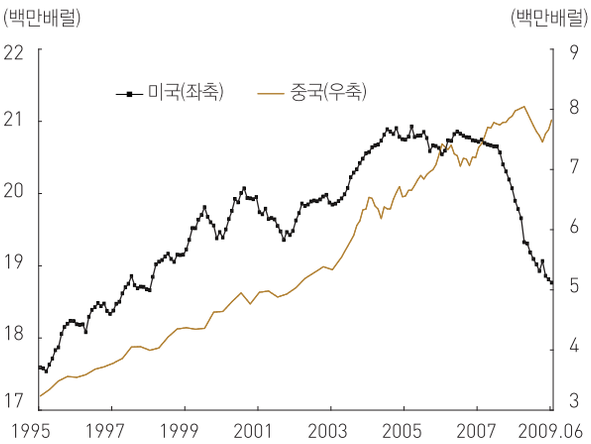
○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1,869만 배럴/일)는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며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40% 하락

■ 원유생산국이 감산을 통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나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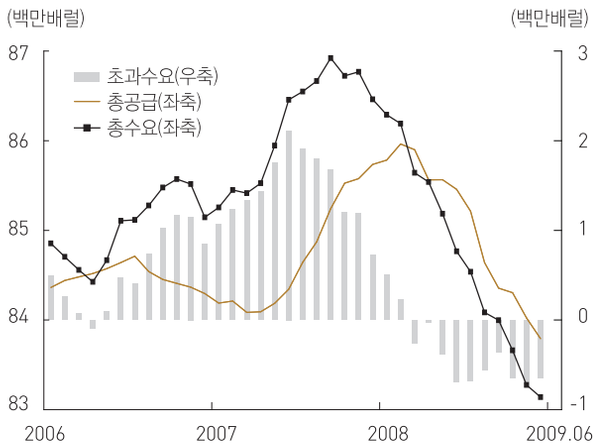
○ 전체 공급의 약 40%를 차지하는 OPEC이 2/4분기 일일생산량을 전년동기대비 6.71% 줄이면서 세계 공급량(8,381만 배럴/일)이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했지만,

○ 글로벌 수요(8,295만 배럴/일)가 더 큰 폭으로 감소 중 (-3.50%, 전년동기대비)

미국과 중국의 원유수요 추이



원유 글로벌 수급추이



주 : 6개월 이동평균
자료 : EIA

하반기 유가는 상승/하락압력이 둘다 상존하나 점차 상승압력이 우세해질 전망

■ [하락론]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유가 하락세가 재개되나 신흥국의 수요가 하강압력을 완화시켜 3/4분기 유가는 배럴당 평균 55달러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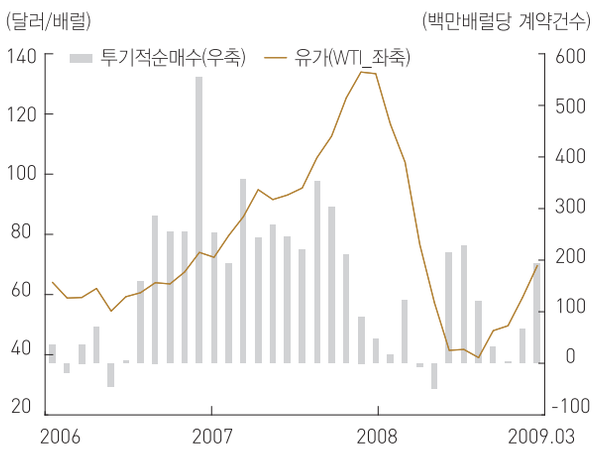
○ 7월 美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마저 확산되는데, 이의 영향으로 7.1일 ~ 9일 동안 주가(다우지수 기준)는 3.7%,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1.7% 하락

■ [상승론] 하지만 4/4분기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재개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다시 원유상품시장으로 유입, 유가가 배럴당 평균 8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

○ 자금력이 수급에 의한 균형가격을 무너뜨리며 유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음을 작년 상반기 동안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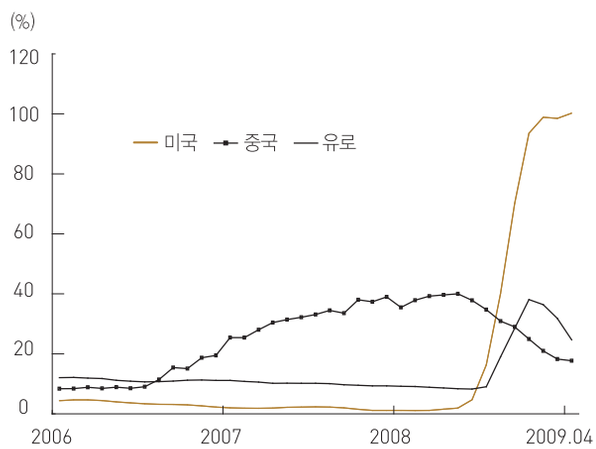
○ NYMEX 원유 투기적 순매수 건수는 '08.12월 ~ '09.2월에 저유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 작년 2/4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했는데 최근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

유가와 원유투기적 순매수 추이



자료 : Korea PDS

주요국 본원통화 증가율



주 : 본원통화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유가상승으로 중소제조업은 수요부진과 비용증가의 쌍방향 피해가 우려

■ 유가상승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중소제조업 경기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매우 취약한 구조

○ 중소제조업 생산은 내수부진이 본격화되기 전인 '08년 상반기부터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 -0.5%)세에 진입

■ 원화로 환산할 경우, 올해 4/4분기 유가는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중소제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

○ 3/4분기 유가(평균 55달러)가 중소제조업의 비용부담을 압박할 가능성은 낮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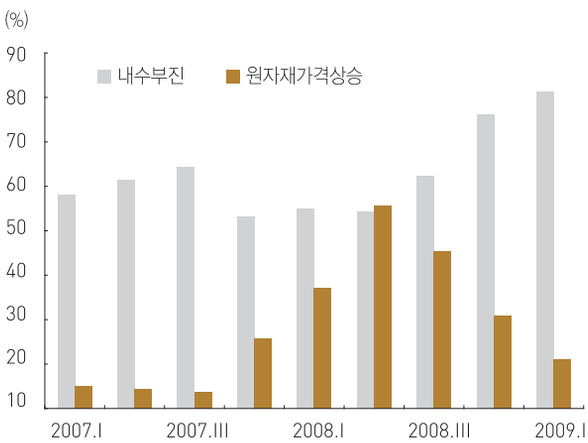
○ 4/4분기 유가(평균 80달러) 상승과 작년에 비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비용압박 수준은 작년 2/4분기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 작년 상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986원임에 반해 올해 하반기는 1,250원으로 전망되며 원유수입에 약 25%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압력

■ 특히 유가가 장기적 상승추세(Super Cycle)에 진입했음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에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유가상승 부담이 중소제조업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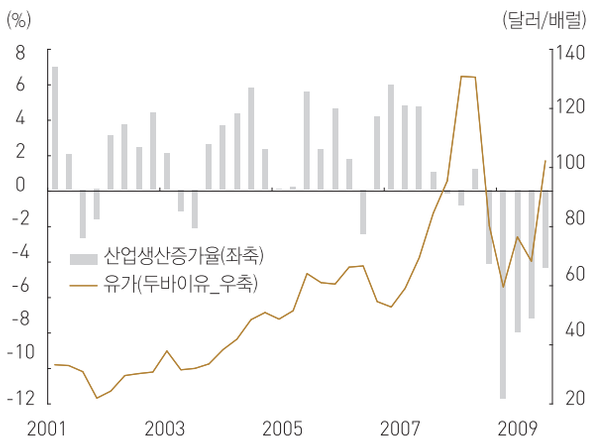
■ 유가상승에 따른 단기 유동자금 지원이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녹색성장기술 등) 발굴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성장을 유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을 전망

중소제조업 자금사정악화 원인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원화환산 유가와 산업생산증가율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국제금융센터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김영훈 연구위원(729-6369)

Ⅲ. 2009년 3/4분기 중소제조업 경기전망

3/4분기 중소제조업 경기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

2009년 3/4분기 중소제조업의 전반적 경기 전망BSI가 104로 조사되어 지난 2/4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

○ 2009년 3/4분기 경기 전망BSI는 경기침체 직전인 2008년 2/4분기 전망(111)이후 최고

○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및 내수부양 기대 등으로 경기가 급락했던 전분기대비 3/4분기 실적 반등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산업별 경기전망 : 중화학공업 BSI는 107, 경공업은 99로 조사

· 3/4분기 중화학공업의 경우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경공업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22개 업종 중 15개 업종의 BSI가 100이상으로 조사

· 전분기대비로 볼 때 가구(40p 상승),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6p 상승), 전기장비(25p 상승) 제조업의 BSI상승폭이 눈에 띄게 증가

중소제조업 전망BSI

		'08년	'09년		'09.3/4비교				'08년	'09년		'09.3/4비교	
		3/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 동기	전분기			3/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 동기	전분기
경기 전반	전체	84	90	104	▲	▲	단가	내수	105	94	96	▽	▲
	경공업	81	86	99	▲	▲		수출	100	90	93	▽	▲
	중화학공업	87	93	107	▲	▲	수익	채산성	76	81	92	▲	▲
수주	전체수주	87	92	104	▲	▲	고용	종사자수	100	97	103	▲	▲
	수출주문	92	89	107	▲	▲		종사자확보사정	98	100	103	▲	▲
판매	내수	87	91	102	▲	▲	자금 사정	판매대금현금결제	91	89	95	▲	▲
	수출	92	87	102	▲	▲		매출채권현금화사정	91	88	96	▲	▲

주 : ▲는 특정시점 대비 2009년 3/4분기 상승, ▽는 하락, —는 동일을 의미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 수주 · 판매 · 채산성 : 수주전망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104로 조사된 반면, 내수 및 수출 단가, 채산성은 100이하로 조사되어 악화될 전망

○ 전체수주 및 수출수주 전망BSI는 각각 104와 107로 조사되어 전분기대비 개선 전망

○ 내수판매, 수출판매 전망BSI도 모두 102로 조사되어 전분기대비 개선 전망

○ 반면 내수판매가격 전망BSI와 수출판매가격 전망BSI는 각각 96, 93으로 조사되어 전분기대비 악화될 전망

○ 채산성 전망BSI는 92를 기록하여 판매 감소 및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악화될 전망이나, 전분기대비 11p 상승하는 등 하락세는 둔화될 전망

■ 자금사정 : 판매대금 및 매출채권 현금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금난은 계속 이어질 전망

○ 판매대금 현금결제 전망BSI는 95를 기록하여 여전히 부진세를 지속할 전망

○ 매출채권 현금화사정 전망BSI도 96을 기록하였으나 하락세는 둔화될 전망

■ 고용 : 올해 3/4분기 종사자수 전망은 103으로 조사

○ 올해 상반기 악화되었던 종사자수 전망BSI가 3/4분기에는 103을 기록하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조정 계획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앞으로의 전망에 주목할 필요

■ 설비투자 · 가동률 : 설비투자 및 가동률 모두 전분기대비 개선 전망

○ 설비투자율 전망은 10.8%를 기록하여 전분기 전망(7.9%)보다 개선

○ 가동률 또한 60%미만 업체비율은 감소(26.2% → 21.3%)하고 80%이상 업체는 증가(27.4% → 35.2%)할 것으로 조사

주) 1: 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경기예측기법
2: BSI = 호전 응답 업체비율(%) − 악화 응답 업체비율(%) + 100
3: BSI가 100이면 전 분기 대비 경기호전 응답 업체수와 경기악화 응답 업체수가 동일함을 의미하고, 100이상이면 경기호전 응답 업체수가 경기악화 응답 업체수를 상회, 100이하면 하회를 의미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민재 연구원(729-6594)

Ⅰ. 해외경제

세계경제 회복세 부진으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필요성 제기

■ 최근 G8 정상회의('09.7.9)에서는 경제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각국별 경기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합의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회복 낙관론'을 경계하고, 각국의 재정지출 축소 혹은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결론

○ IMF에서도 '세계경기전망 보고서'('09.7.9)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세는 지지부진(sluggish)하다고 평가하며 각국 정부의 지속적 경기부양책을 촉구

■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2차 경기부양논란이 첨예하게 대립 중

○ 美 실업률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신용카드 · 부동산담보대출 · 소비자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여 경기회복론이 급속히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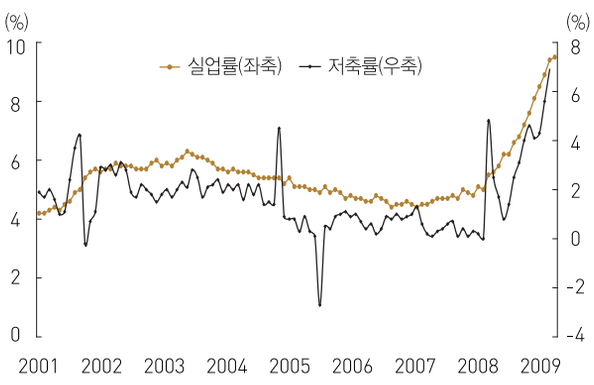
· 美 6월 실업률이 26년래 최고치 기록(5월 9.4% → 6월 9.5%)

· '09.1/4분기 신용카드 및 소비자대출 연체율이 전분기대비 연속 상승하여 '85년 이래 최고치 기록 (5.72% → 6.61%, 4.45% → 4.63%),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도 전분기대비 급등 (6.15% → 7.33%)

○ 이에 대해, 워렌버핏 및 폴 크루그만 교수는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백악관 및 다국적 보험그룹 스위스 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커트 칼을 포함한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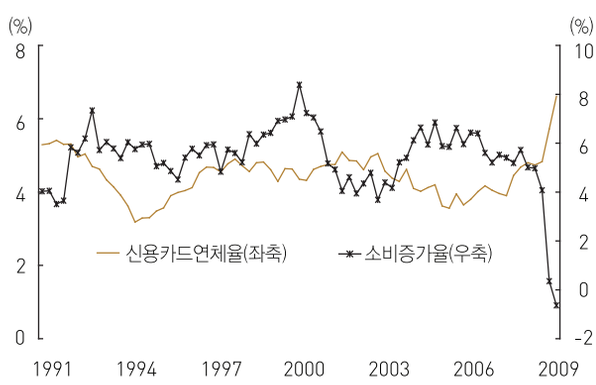
■ 한편, 가계부문 건전성 회복을 위한 디레버리징으로 美 저축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

美 실업률과 저축률



자료 : 美 노동부, 상무부

美 신용카드 연체율 및 소비증가율



자료 : 美 연준, 상무부

Ⅱ. 국내경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 중이나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려요인

국내외 대다수 기관들이 한국경제 회복을 낙관하는 분위기

○ 7.10일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4%(4월)에서 -1.6%로 상향조정

○ 비록 -3.0%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IMF도 6월 한국경제성장률을 1.0%p 상향 조정했으며, OECD의 경우에는 내년 한국경제가 3.5% 성장하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제시

○ 이러한 낙관론은 한국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감세효과가 2/4분기 이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

○ 한국은행은 2/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전기대비 2.3% 증가했다고 발표

하지만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의 정책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연할 수 있는 우려요인

○ 재정건전성을 위해 향후 상반기와 같은 공격적인 재정투입 및 감세기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
·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올해 -3.2%로 G20 국가 중 4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나 내년 -4.7%까지 하락하며 악화속도(-1.7%p)면에서는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

○ 실질실업자 수가 320만명(실질실업률 13%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재정투입 및 감세여력 약화는 고용사정과 민간소비 회복을 더디게 할 위험이 상존
· 실질실업자는 공식실업자(93만명)에 취업준비자(62만명), 구직단념자(15만명), 주당 18시간 미만 근무자 중 취업 희망자(18만명), 그냥 쉬고 있는 자(130만명)를 포함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추이

IB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연구기관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골드만삭스	-3.0(5월)	-1.7(7월)	IMF	-4.0(4월)	-3.0(6월)
BNP파리바	-5.6(3월)	-1.5(6월)	OECD	-	-2.2(6월)
노무라증권	-4.0(4월)	-1.0(6월)	한국은행	-2.4(4월)	-1.6(7월)
메릴린치	-3.0(4월)	-1.2(7월)	KDI	0.7(1월)	-2.3(6월)
모건스탠리	-2.8(2월)	-1.8(6월)	삼성경제연구소	-2.4(2월)	-2.4(6월)

자료 : 각 기관 보도자료

Ⅲ. 중소기업

5월 중소제조업의 전반적인 경기는 전월보다 소폭 악화

■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월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7.0%의 감소세 지속

○ 2개월간 상승세를 보였던 중소제조업 생산은 0.7% 감소하여 2005년 기준지수(100)이하인 99.6으로 하락

· 금속가공, 자동차 트레일러 등 가공조립업(-13.7%)의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초소재 부문이 감소세로 전환(4.1%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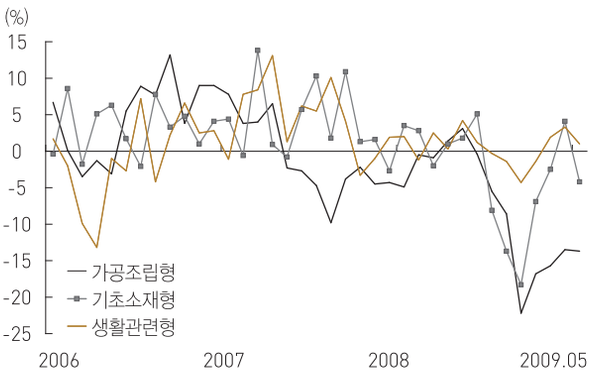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전월과 같은 수준이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던 가동률은 하락 반전

○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전월과 동일한 15.4%로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상반기 미실시분이 시행되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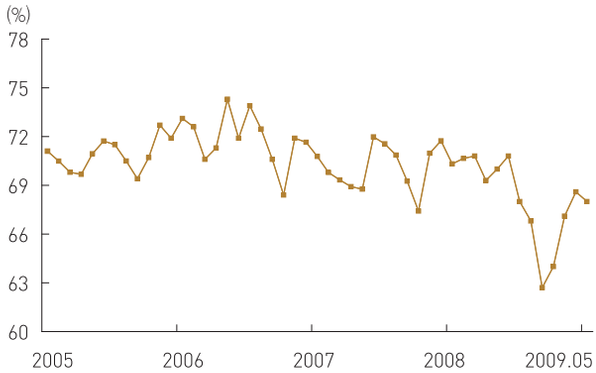
○ 평균가동률은 68.0%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6%p 하락

· 평균가동률의 최근 고점은 '03년 4월 77.7%, 저점은 '09년 1월 62.7%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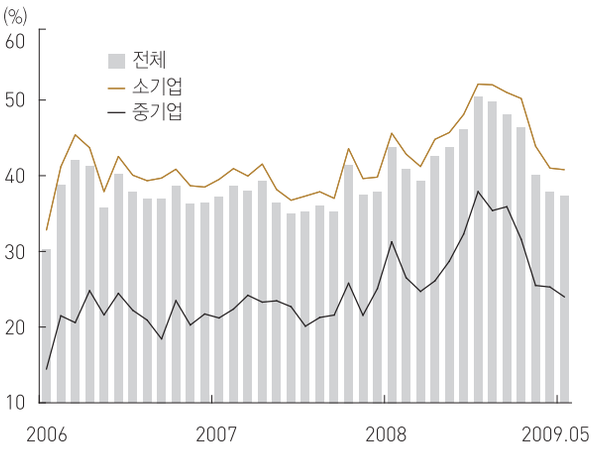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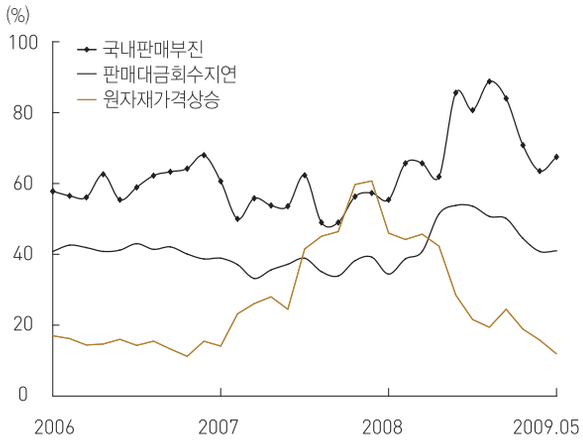
■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은 37.3%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5%p 개선되는 등 6개월 연속 개선추이를 이어감

○ 주요 자금사정 곤란 사유 중 '국내판매부진'이 소폭 증가했으며 '원자재가격상승'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악화업체비율 추이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악화 원인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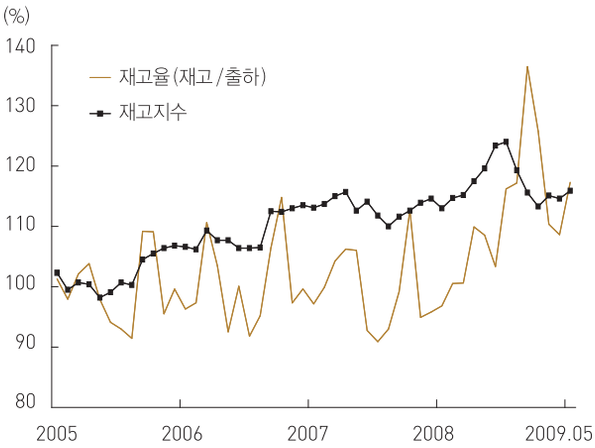
■ 실질적인 재고수준을 나타내는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 감소와 재고 증가로 인해 상승(108.6% → 117.3%)

○ 재고율은 출하량(1개월간) 대비 재고량(월말)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재고수준을 의미하며 재고율이 100%라는 것은 현재의 재고가 1개월 내에 모두 출하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

■ 신설/부도법인 배율은 부도법인 수의 큰 폭 감소로 인해 전월(32.9배)보다 상승한 39.9배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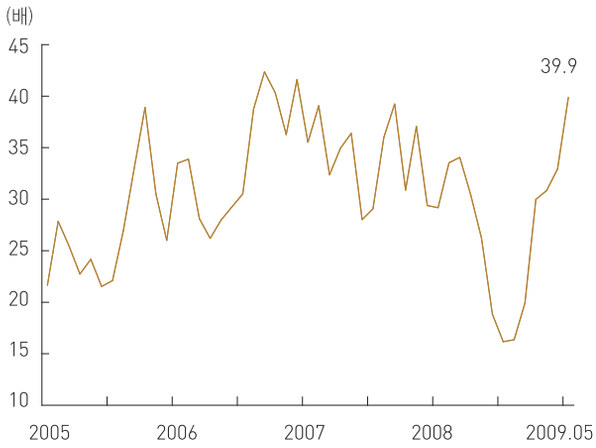
○ 부도법인 수는 전월(153개)보다 줄어든 101개로 '07년 9월(88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소기업 재고율 추이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신설/부도법인 배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Ⅳ. 금융시장

외환 수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해 변동성은 높을 전망

■ 기준금리 2.0%로 5개월째 동결, 3년만기 국고채 금리 한 달만에 3%대 안착

○ 7.10일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상향조정했지만 현재는 경기침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

○ 국내경제의 개선 분위기는 국채금리 상승압력을 강화시켰지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국채선물을 매수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91%(7.10일)까지 하락

○ 기준금리는 당분간 2.0%로 유지될 전망이며, 국고채 3년물의 금리도 추가적인 하락없이 외국인 매수/매도세에 좌우된 채 4.0% 안팎에서 등락할 전망

■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외환 수급상 환율 급등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외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커질 전망

○ 사상최대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지속 등 외환 수급안정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이 제한되며 오히려 반등하는 불안정한 모습

○ 이는 美 기업들의 2/4분기 실적 악화 우려 및 동유럽 국가들의 IMF 구제금융 신청 등 세계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기 때문이며,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 높은 흐름은 이어질 전망

○ 한편,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전망으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2월 이후 최고 강세를 보였으나, 일본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엔고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금리 추이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Ⅴ. 자금흐름

MMF, 정부 및 기업자금의 인출 등으로 금년 중 가장 큰 폭 감소

■ 국고채 만기상환 등을 위한 정부자금과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의 자금인출로 MMF가 대폭 감소하면서 자산운용사 수신은 큰 폭 감소

○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펀드는 순유입 기조를 지속한 반면, 주식형펀드는 순유출 지속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6월말
	연중	6월	연중	6월	4월	5월	6월	잔 액
은행 수신	59.6	12.4	104.3	5.2	7.4	10.4	7.7	991.7
(수시입출식[1])	-6.6	8.6	11.8	5.4	4.8	6.7	8.3	282.0
(정기예금)	11.9	0.8	63.0	-3.6	2.0	-0.8	-3.7	340.1
(CD)	28.8	0.8	8.2	3.1	3.6	1.2	2.3	108.0
(은행채)	34.0	3.0	31.2	0.0	-3.3	2.3	2.1	193.6
자산운용사 수신	61.8	13.6	63.0	-1.0	2.2	-2.2	-11.5	374.1
MMF	-10.4	3.6	42.2	-4.7	1.3	-3.1	-12.7	104.0
주식형	69.9	8.2	23.9	1.7	-0.9	-0.7	-0.8	137.2
채권형	-9.6	0.0	-10.5	-0.9	3.4	2.1	2.1	40.0
혼합형	-3.3	1.3	-5.4	0.8	-0.9	-0.3	-0.3	34.4
신종펀드[2]	15.3	0.4	12.9	2.1	-0.7	-0.2	0.2	58.6
증권사 CMA	18.5	2.0	3.5	0.1	1.2	0.6	-0.1	38.3

주 : 1) 요구불예금 포함 2)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금융투자협회

■ 의무대출 부담 완화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기업대출은 감소로 전환된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및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06.11월(+5.4조원) 이후 최대 증가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동향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6월말
	연중	6월	연중	6월	4월	5월	6월	잔 액
기업대출[1]	79.3	9.9	78.3	8.0	3.6	0.6	-1.6	505.2
(대 기 업)	12.5	1.6	30.3	1.7	0.5	-2.6	-2.5	77.7
(중소기업)	66.8	8.3	48.0	6.3	3.1	3.2	0.9	427.5
기업직접조달[2]	8.5	-1.2	26.5	0.3	4.0	1.8	1.3	
가계대출[3]	17.8	0.8	25.0	3.1	1.1	2.8	4.0	399.5
(주택담보대출)	4.6	0.7	18.1	1.3	1.2	2.4	3.5	254.4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0.0	6.8	1.8	0.2	0.5	0.5	143.8

주 : 1)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직접조달 = CP순발행 + 회사채 순발행 + 주식발행 3) 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Ⅰ. 하반기 경영환경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인들의 시각

■ '09.6.9 ~ 12일까지 기업은행 거래업체 중 1,0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전반적으로 경영환경 및 실적이 개선되고 자금사정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

■ 경영상황 : 하반기 경영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증가

○ '09년 하반기 경영상황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36.0% → 64.1%)한 반면,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은 크게 감소(28.1% → 10.5%)

(단위 : %)

	크게호전	다소호전	비슷	다소악화	크게악화
상반기	3.8	32.2	36.0	22.1	6.0
하반기	8.8	55.3	25.4	9.1	1.4

■ 매출실적 : 하반기에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기업이 많음

○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이 상당폭 증가(36.6% → 64.7%)한 반면,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은 크게 감소(33.4% → 11.6%)

(단위 : %)

	크게증가	다소증가	비슷	다소감소	크게감소
상반기	5.2	31.5	29.9	24.8	8.6
하반기	11.7	53.0	23.7	9.4	2.1

■ 수익성 : 수익성도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

○ 상반기 수익성은 '개선'(30.6%)보다 '악화'(33.5%)가 다소 높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55.8%)이 '악화'(14.2%)보다 훨씬 높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크게개선	다소개선	비슷	다소악화	크게악화
상반기	2.6	28.0	35.9	27.1	6.3
하반기	7.8	48.0	30.0	11.7	2.5

■ 자금사정 : 상반기에는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다소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다수

○ 상반기 자금사정은 '호전'(27.9%)이 '악화'(28.9%)보다 다소 낮았으나, 하반기에는 '호전'(44.7%)이 '악화'(14.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단위 : %)

	크게호전	다소호전	비슷	다소악화	크게악화
상반기	1.9	26.0	43.3	24.3	4.6
하반기	4.5	40.2	41.2	12.6	1.6

은행차입에 대한 수요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은행차입 : 상반기에는 차입이 증가한 기업이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차입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반기 은행차입은 '증가'(36.6%)가 '감소'(18.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에는 '감소'(25.2%)가 '증가'(23.2%)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크게증가	다소증가	비슷	다소감소	크게감소
상반기	5.1	31.3	45.5	13.3	4.9
하반기	2.5	20.7	51.5	18.6	6.6

■ 자금조달 목적 : 주 사용처는 원자재 구입비와 회사운영비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설비증설 및 R&D 지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는 기계 · 설비 등 증설(14.2% → 15.9%),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11.2% → 14.5%), 토지 · 건물구입 및 신축(7.7% → 8.5%)을 위한 자금조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단위 : %)

	기계설비 등 증설	토지 · 건물 구입 및 신축	신기술 · 신제품개발 및 상품화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 세금 등 회사운영비	공장이전 등 해외투자	고금리 부채상환	기타
상반기	14.2	7.7	11.2	37.7	22.2	1.4	4.7	1.0
하반기	15.9	8.5	14.5	35.1	18.3	1.4	5.3	1.0

■ 시설투자 : 하반기 중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중 설비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26.5% → 32.2%)

(단위 : %)

	크게증가	다소증가	비슷	다소감소	크게감소
상반기	7.9	18.6	43.7	18.5	11.2
하반기	6.1	26.1	46.4	13.9	7.5

내용문의 : 경영연구팀 이상엽 연구위원(729-6623)

Ⅱ.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세종대왕의 리더십

■ 본 글은 전경일 인문경영연구소 소장이 동아 Biz가 주최한 포럼에서 '불황을 이기는 世宗 리더십'이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함

세종 즉위 당시 국제상황은 최근의 상황과 유사

■ 당시의 국제상황

○ 정복군주로 유명한 영락제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인해 명나라의 국력이 날로 강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

■ 최근 상황

○ BRICs 중 선두주자인 중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두면서 '샌드위치론'이 현실화될 우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르네상스 시대를 개척

■ 뚜렷한 경영방침 수립

○ 어린 나이에 국가 CEO가 되었지만 흔들림 없는 경영방침(施仁發政 : 어짊으로 정치와 경제를 운영)의 틀을 유지하며 나라를 이끎

○ 재정부실과 토지개혁 실패 등을 고려가 붕괴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경제 · 사회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음

세종대왕의 사상

사 상	내 용
생생지락(生生之樂) 희호지락(熙皞之樂)	기쁨이 넘쳐흐르는 세상 만들기에 주력
융평(隆平), 풍평(豊平)*	효율성, 형평성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신념
선부후교(先富後敎)	경제 발전이 뒷받침된 교육 정책 강조
전문가 양성	장영실(과학), 최연(예술) 등을 양성하며 전문성을 통한 발전 추구

* : 융평(隆平) : 높은 수준에서의 평화, 평등(형평성 추구), 풍평(豊平) : 절대 풍요의 경지(효율성 추구)

■ 반대파를 끌어안는 포용성

○ 충녕대군의 왕위 등극을 반대한 황희를 중용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함

○ 한글 창제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 한자를 계속 쓰자는 반대파의 세력이 적지 않았으며 집현전 보수학파를 대표하여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 반대파를 적대시하지 않고 '仁'과 '德'을 통해 꾸준히 설득하고, 용비어천가에 CEO도 잘못하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입하여 역성혁명론을 겸허히 수용함

■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잠든 신숙주에게 자신의 용포를 덮어주며 상 · 하 관계를 넘어선 감성 리더십을 발휘

○ 주당(酒黨)인 신하 윤회의 재질을 아껴 잘 다듬어지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충고를 통해 당대의 문장가로 성장하게 함

최근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

■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음

○ 위기는 부정(위험)과 긍정(기회)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

○ 위기를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임

■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성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

○ 직원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조직을 활력있게 만듦

○ 모든 사람이 맡은 분야에서 본인이 CEO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내용문의 : 경영연구팀 최원희 연구원(729-6987)

Ⅲ. 컨설팅과 함께 기업살리기

Problem 신사업에 진출을 결정했으나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 기존 사업외에 신규 사업 진출을 결정하였으나 2년간 연속 적자 시현

❍ 그동안 축적한 자본으로 유지는 하였으나 구조조정 없이는 기업이 불투명한 상황

What to do? 사업현황에 대한 진단 및 자체 구조조정안 검토

❍ 컨설턴트들은 CEO와 경영진 면담을 통해 신사업 추진 경위 및 현재 상황 점검

❍ 점검 결과, 신사업의 정상궤도 진입이 불투명하고 기존사업 역시 수익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기업의 자체적 자구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함

Solution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합리적 구조방안 제시

❍ 컨설턴트들은 기존 자구방안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힘들다 판단하고 기존자구방안 및 사업환경과 경영진의 의지를 감안한 종합 자구안을 마련

❍ 기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신사업에서의 철수 및 기존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내부절감 및 일부부문 구조조정 결정

❍ 또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진의 솔선수범 및 초심으로 돌아가 강한 의지로 전 조직원이 협력하여 사업추진 할 것을 당부

Review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구조조정 실시 필요!!!

❍ 컨설턴트들의 체계적인 구조조정안과 기업을 살리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로 신사업 철수, 설비 매각 및 유휴공간 임대 등 구조조정안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수익성 및 현금유동성 등이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컨설팅관련 문의 : 기은컨설팅센터 유휘동 과장(6322-5178)

Ⅳ. 서평

세계 최고 혁신 기업에서 배우는 12가지 경영교훈『애플의 방식』



"창조경영의 아이콘 애플의 혁신에서 배워라!!"

제프리 크루이상크(Jeffrey L. Cruikshank)은 Amherst College를 졸업하고 1970 ~ 1980년대 보스턴 지역의 많은 기업, 학교와 일했다. 컨설팅업체 Kohn Cruikshank Inc.의 공동설립자이며, 1980년에는 〈Harvard Business School Bulletin〉편집자로 인연을 맺은 후, 교육계와 비즈니스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리더들이 흥미로워할 저서들을 집필했다.

이 책은 과거 완벽한 기술 기업이었던 애플의 과거사와 현재 진행 중인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으나, 역사서는 아니며 컴퓨터광들을 위해 집필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애플의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수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싶어 하는 리더들을 위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 세련된 디자인과 포장, 생산적인 기업 문화" 등 애플의 핵심전략 4가지가 담겨 있다. 이들 교훈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 있으면서 비즈니스 현실에 반영되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여 애플의 실패와 성공에서 귀중한 교훈을 준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교훈' 자체에 굳이 집착하지 않더라도, 대표적 혁신기업인 애플이라는 흥미진진한 기업에 대해 읽는 것 자체가 큰 재밋거리다.

이 책의 주요내용들은 혁신이란 키워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 최고 혁신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의 혁신 비결은 무엇일까? 애플의 혁신은 사람에게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븐 잡스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부딪치는 과정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그래서 좋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사고방식이란, 잡스의 표현을 빌리면, "당신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표현하여 그로부터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이다. 혁신은 그러한 의지의 열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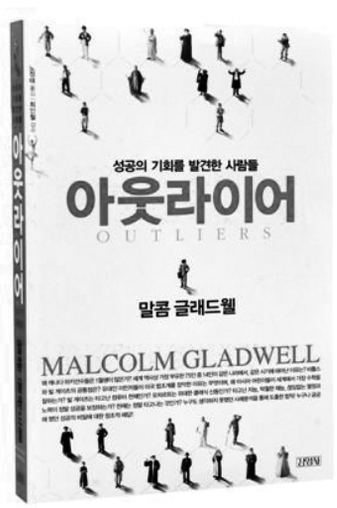
애플이 깨달은 성공적인 혁신에 이르는 7가지 교훈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비전을 공유하라. 비전을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라.", "시장보다 3년 앞서 가는 것, 그리고 경쟁업체보다 두 배 비싼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등의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최고 혁신기업의 경영교훈을 풍부한 사례로 풀어서 쉽게 쓰고 있으며, 일관성 유지, 컬트(문화) 구축, 놀라운 디자인 등의 애플만의 독창적인 경영교훈은 혁신을 필요로 하는 리더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권 형 택 (기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OUTLIERS)』

우리가 성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틀렸다!



2005년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으로 선정되었던 '독보적 경영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은 새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천재'들이 지니는 일반적 성공의 메커니즘과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저자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이점과 특별한 기회요소, 그리고 문화적 유산과 역사적 공동체의 혜택을 누려왔으며 재능과 지능에 의한 놀라운 성공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회(Opportunity) : 캐나다 하키를 지배하는 철의 법칙

캐나다 주니어 하키리그 선수들 중 대부분이 연초에 태어났으며, 엘리트 하키팀에 소속 된 25명의 선수 중 17명이 1 ~ 4월에 태어났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답은 단순하다. 유소년 하키리그가 1월 1일 기준으로 선수들을 나누기 때문에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은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발육 수준에서 앞서게 되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선수로 선발되어 집중 훈련을 받게 되므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키 선수들의 이 누적적 이득을 예로 들면서 말콤 드래그웰은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고 말한다. 출발점에서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 기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 결국 아웃라이어로 성장하는 것이다.

1만 시간의 법칙 : 진정한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한 매직넘버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성공이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자기 분야에서 최소 1만 시간동안 노력한다면,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만 시간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시간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시간이다. 1만 시간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 아웃라이어의 제1요인은 천재적 재능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쉼 없는 노력이다.

유산(Legacy) : 진정한 아웃라이어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이다.

영어에서는 14를 fourteen, 16을 sixteen이라고 하지만 11은 eleven, 12는 twelve라고 한다. 또한 20을 넘어가면 10단위를 먼저 말하고 1단위를 말하지만 (가령 twenty-one) 11에서 19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 즉 fourteen, seventeen 같은 식으로 읽는다. 하지만 한국의 숫자체계는 매우 논리적이다. 11은 '십일'이고, 24는 '이십사'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네 살만 되어도 보통 40까지 헤아리지만 그 나이 미국 어린이들은 15까지밖에 세지 못한다. 이렇듯 아시아인에게 숫자는 암기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수 3/5도 영어로는 three-fifths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5로 3을 나눔(오분의 삼)'이라고 한다. 한국 어린이들은 미국에 비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타고난 것이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된 배경에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이 큰 몫을 했으며, 아웃라이어는 문화적 유산과 기회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CEO는 직원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후천적 재능과 가능성을 꾸준히 계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한다. 짧은 시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분명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21세기 아웃라이어로 거듭날 것이다.

김 문 영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지표

		2007년	2008년	2008년	2009년	2009년		
				4/4분기	1/4분기	3월	4월	5월
성장	GDP(%)	5.1	2.2	-3.4	-4.2			
	(전기대비)			-5.1	0.1	2.3(2/4분기, 잠정치)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1.1	100.0	97.2	92.3	92.5	93.5	93.8
	선행지수전년동월비(%)	6.9	0.9	-4.1	-3.5	-2.0	0.1	2.6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6.8	3.0	-11.3	-15.5	-10.5	-8.2	-9.0
	생산자제품출하(%)	7.1	2.4	-10.1	-14.7	-11.1	-8.1	-8.7
	생산자제품재고(%)	5.7	12.3	7.3	-5.7	-5.8	-9.8	-13.4
	제조업가동률(%)	80.1	77.2	69.3	65.8	69.2	71.6	73.0
	제조업BSI(실적치)	85	74	55	49	57	69	74(77)
소비	소비재판매(%)	5.1	1.0	-4.5	-4.9	-5.2	-3.9	1.7
	소비자심리지수			84	84	84	98	105(106)
투자	설비투자추계(%)	8.6	-3.2	-16.8	-23.0	-23.3	-25.6	-13.1
	기계수주(%)	19.8	-5.5	-33.2	-36.0	-30.2	-25.8	-16.1
	건설기성액(%)	6.6	4.7	-2.2	4.5	3.0	6.0	-1.1
	건설수주액(%)	19.3	-9.0	-3.7	-16.5	-14.7	-8.0	-18.5
고용	실업률(%)	3.2	3.2	3.1	3.8	4.0	3.8	3.8(3.9)
	취업자증가율(%)	1.2	0.6	0.2	-0.6	-0.8	-0.8	-0.9(0.0)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6.4	3.4	-0.3	-0.1	-0.7	1.8	0.2
물가	소비자물가(%)	2.5	4.7	4.5	3.9	3.9	3.6	2.7(2.0)
	(전월비)					0.7	0.4	0.0(-0.1)
	생산자물가(%)	1.4	8.6	8.0	4.2	3.5	1.5	-1.3(-3.1)
	(전월비)					0.5	0.2	-0.8(-0.3)
	전국주택매매(%)	9.0	4.1	3.1	1.6	0.7	-0.1	-0.6(-1.0)
	서울아파트매매(%)	16.0	5.4	3.2	0.7	-0.6	-2.2	-2.8(-2.8)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58.8	-64.1	75.1	85.8	66.5	42.5	36.3
	수출증가율(%)	14.1	13.6	-9.9	-24.9	-22.1	-19.7	-28.5
	수입증가율(%)	15.3	22.0	-9.0	-32.8	-35.9	-35.6	-40.3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는 6월 수치

		2007년	2008년	2008년	2009년	2009년		
				4/4분기	1/4분기	3월	4월	5월
중소 제조업	산업생산(전체,%)	3.9	-1.0	-4.0	-11.0	-7.2	-3.8	-7.0
	(중화학공업,%)	3.5	-1.5	-2.8	-13.2	-9.3	-5.3	-8.7
	(경공업,%)	4.6	0.2	-3.0	-6.1	-2.1	0.0	-2.9
	설비가동률(전체,%)	70.4	69.7	68.5	64.6	67.1	68.6	68.0
	(소기업,%)	69.4	69.1	68.6	63.3	65.5	67.1	66.6
	(영세기업,%)	65.1	64.1	62.7	58.6	60.3	61.7	61.9
	(중기업,%)	77.0	75.5	73.4	69.8	73.1	74.3	73.4
	설비투자실시업체(전체,%)	17.3	13.9	12.2	12.6	14.0	15.4	15.4
	(소기업,%)	15.1	11.8	10.2	9.5	10.4	12.0	12.5
	(영세기업,%)	10.1	7.5	6.5	6.2	7.1	8.2	7.8
	(중기업,%)	33.1	28.8	27.0	24.9	28.3	28.2	27.6
	자금사정악화업체(전체,%)	37.0	42.4	48.8	44.8	40.1	37.8	37.3
	(소기업,%)	39.1	44.4	50.7	48.4	43.9	41.0	40.8
	(영세기업,%)	45.1	48.5	53.8	50.0	47.1	43.7	42.6
	(중기업,%)	21.9	28.1	35.2	31.0	25.5	25.3	24.0
	중소제조업고용(증가,%)	10.8	9.8	9.1	10.3	10.9	11.8	11.5
	(감소,%)	12.4	12.9	15.1	16.1	14.4	13.1	13.1
	(증감차,%p)	-1.6	-3.1	-6.0	-5.8	-3.5	-1.3	-1.6
	BSI 실적(기준=100)	84	71	57	56	87(2/4분기)		
	전망(기준=100)	106	98	99	90	104(3/4분기)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4	0.05	0.03	0.04
	신설법인(월평균, 개)	4,505	4,238	3,701	4,152	4,564	5,038	4,029
	부도법인(월평균, 개)	126	157	216	158	148	153	101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년	2008년	2008년	2009년	2009년		
				4/4분기	1/4분기	4월	5월	6월
자금시장*	총수신(은행)	5.0	8.7	8.0	4.5	7.4	10.4	7.7
	(자산운용사)	5.1	5.3	6.5	8.6	2.2	-2.2	-11.5
	가계대출	1.5	2.1	1.6	1.0	1.1	2.8	4.0
	(주택담보대출)	0.4	1.5	1.7	2.5	1.2	2.4	3.5
	기업대출	6.6	6.5	2.4	3.6	3.6	0.6	-1.6
	(대기업)	1.0	2.5	1.7	0.5	0.5	-2.6	-2.5
	(중소기업)	5.6	4.0	0.7	3.1	3.1	3.2	0.9
금리	콜금리(%)	4.77	4.78	4.05	2.09	1.80	1.91	1.93
	국고채3년(%)	5.24	5.27	4.68	3.64	3.76	3.83	4.09
	회사채3년(AA-, %)	5.70	7.02	8.29	6.85	5.68	5.18	5.21
환율	원/달러	929	1,103	1,363	1,415	1,342	1,259	1,261
	엔/달러	117.8	103.3	96.2	93.8	99.0	96.5	96.6
	원/엔(100엔)	789	1,077	1,421	1,510	1,356	1,305	1,306
	달러/유로	1.371	1.471	1.319	1.306	1.320	1.366	1.402
국제금리	미국국채10년(%)	4.02	2.21	3.04	2.84	3.12	3.46	3.53
	일본국채10년(%)	1.66	1.46	1.35	1.31	1.43	1.49	1.36
유가	WTI($/bbl)	72.4	99.8	59.1	43.3	50.0	59.2	69.7
	Brent($/bbl)	72.7	98.3	57.5	45.7	51.4	58.5	69.3
	Dubai($/bbl)	68.2	94.3	52.9	44.3	50.0	57.9	69.4
원자재	금($/온스)	696	872	796	908	890	929	946
	전기동($/톤)	7,096	6,884	3,950	3,473	4,419	4,583	5,030
	알루미늄($/톤)	2,662	2,620	1,882	1,397	1,459	1,497	1,605

주 : 기간중 평균

*단위 : 조원, 기간중 말잔 증감액, 연간 · 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 증감액

MEMO

MEMO